

등록번호	행정문화위원회-2184
등록일자	2020. 12. 14
결재일자	2020. 12. 14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담당자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위원장
이성희	김충훈	곽기현	진경호

제 325회 정례회 기간 중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결과 보고



충청남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위)

- 제 325회 정례회 기간 중 -

친일잔재청산 특위 현장방문 결과 보고

- ▣ 친일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설치된 친일 인사 죄상비를 관람하고 친일 잔재 청산에 충남 도가 나아가야 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장 마련

I 개요

- (일 시) 2020. 11. 23.(월) 10:00 ~ 14:00
- (장 소) 공산성 인근 죄상비(공주시 소재), 우금치전적지(공주시 소재)
- (참석자) 19명(특위 위원 4, 전문위원실 6, 충무담당관실 1, 문화체육관광국 3, 공주시 3, 토론자 2 등)
- (주요내용) 친일인사 선정비를 보존함과 동시에 단죄비를 세워 역사인식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도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친일 잔재 청산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안 모색

II 종평

- (토론) 친일인사 죄상비 설치 경위를 청취하고 아산근대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며 친일 잔재를 청산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역사 인식개선의 일환으로써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 (현장방문) 공주시에 설치된 죄상비 설치 현장과 우금치전적지를 둘러봄으로써 동학으로부터 파생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음.

- ▣ 의정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자리로 의미 있는 시간.

III

주요내용

① 친일인사 죄상비 관련 토론(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

- 공주시는 이인면사무소 앞 박제순 공덕비 앞에 그의 친일행적을 알리는 죄상비를 시작으로 공산성 주차장 인근에 죄상비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친일잔재를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후세에 널리 알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군의 우수사례를 충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정책반영

② 아산시 근대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논의(민족문제연구소 박창봉 아산지회장)

- 아산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둔포면 신항리에 있는 근대건축물인 국가지정문화재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및 도지정문화재 윤일선 가옥, 윤제형 가옥, 윤승구 가옥 등의 문화재 원형보존 및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근대문화마을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을 진행 중임.
⇒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조성에 있어 가옥의 건립 내력과 이곳 태생 해평윤씨 일가의 일제강점기 역사적 행적에 대한 기록을 지역 주민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방문객에게 알리는 방안 모색

③ 현장방문

현장 사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공산성 주차장 인근 죄상비 설치현장○ 내 용 : 공산성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금성동 선정비군 (善政碑群)에 세워져 있는 박중양 불망비와 김관현 홍학선정비에 죄상비를 설치, 친일행적을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소 : 우금치전적지○ 내 용 : 충남 공주시 금학동 소재의 제2차 동학농민운동 최후 격전지로 반봉건 · 반외세의 뜻을 걸고 마지막 항전을 펼친 역사적 의의가 깊은 장소

IV

향후 계획

-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방안 모색 및 정책반영 사항 지속 검토
- 친일잔재 청산과 더불어 친일인사의 역사적 행적을 알리는 방안 마련